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는 25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전반기정 조례안,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광형 노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군민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장 방문하고 일부는 의회에서 보고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은 "우리 부안은 군민들께서 군을 믿고 힘을 모아주시는 덕분에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후유피해로부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위기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태풍피해 최소화"

부안군은 제8호 태풍 '비비'가 북상함에 따라 예상대로, 영향범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처방향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군은 하천, 해안가, 배수시설 등 위험지역 공사장 작업 중지 및 재해복구 사업장 등 공사현장 침수 방지 등 안전조치, 산사태, 낙석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강한 바람을 동반 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은 강풍·풍랑 대비 간판 고정, 선박 결박·인양·대피 및 수산시설물 결박·고정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부안군수는 올해 긴 기간의 장마전선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에 잇따른 태풍 북상 상황에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정읍시, 내달 6일까지... 미이행맨 형사고발 · 구상권 청구
실내 50명 이상 · 실외 100명 이상 집합 · 모임 전면 금지

정읍시가 코로나19 2차 유행과 관련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할 경우, 정읍지역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대유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을 전면 금지한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을 의무화하고, 실외에서도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 등 10종의 고위험 시설과 학원, 공연장,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 11종의 핵심 방역 수칙 준수도 의무화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은 휴관·휴원토록 권고했다. 다만 휴원 중에도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소모임과 식사를 비롯한 음식 제공을 금지하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시는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차단을 위해 지난 23일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 강화조치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지역 내 종교시설 288개소(개신교 285, 기타종교 3) 중 232개소가 예배를 실시했고, 이 중 35개소가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집합 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고시문과 방역 강화조치를 안내하고, 비대면 예배를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적용 대상시설과 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4대 종단과 코로나19 방역 총력

유기상 군수-지역 종교지도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간담회

고창군이 25일 지역 종교지도자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기상 군수와 고창군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타 지역에서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군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유 군수는 이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4대 종단에 ▲음식 제공,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련회 등 종교계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는 물론 예배·

미사·법회 시 찬송·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등의 자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지역 종교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정부와 군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각 종교계는 우선 9월 첫째 주까지 미사·예배·법회 등 다수가 모이는 모임을 중지했거나 일시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 인원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후 진행하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오충남 고문 등 4명이 고창군청을 찾아 수해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선동기 200대를 전달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 사랑의 선동기 200대 기부

최근 고창군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에서 사랑의 선동기 200대(100만원 상당)를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오충남 고문 등 4명이 고창군청을 찾아 수해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선동기 200대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에서 그간 공익기부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통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수익금을 보람 있게 사용할 곳을 고민하던 중 고창군과 협의를 통해 최근 폭염으로 가장 긴요한 물품이 선동기라는 의견을 듣고 선동기 200대를 기부하게 됐다.

김앤장은 1999년 국내 법률회사(로펌) 최초로 공익 활동을 위한 상설기구인 '공익활동위원회'를 창설해 구성

원들이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후 2013년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과 후원을 실천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오충남 고문은 "수해로 힘든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와 후원을 실천하고 있다."

김앤장은 "수해로 힘든 이웃을 함께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신속한 수해복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전북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수상

개인·단체부문 우수한 성적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전북농업기술원 주관 지난 3일부터 4일간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10회 전라북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개인 부문과 단체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회에는 총 11개 시군에서 116명의 참가자가 경쟁을 벌였다. 블로그 포스팅과 개인 UCC 부문은 경진대회 당일 온라인상에서 주제가 제시된다.

참가자들은 제시된 주제에 맞게 이미지 촬영, 문구 삽입, 동영상 편집 등 본인의 정보화 능력을 발휘해 출품작을 제작하고 제한 시간 내에 대회 카페에 등록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개인 UCC 부문 장년 분야에서 황진아농장

이명월 대표가 최우수상을, 상생농장 최상득 대표가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단체 정보화 부문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고 온라인 유통이 성장하는 추세다"며 "농업인의 정보화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전라북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도 UCC 분야 푸른농원 정갈남 대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단체부문 또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 농업인 정보화 분야 최우수 시군으로 손꼽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배' 베트남 수출 상차식

정읍시의 특산품인 고품질 '정읍 배'가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다.

시는 25일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베트남에 '정읍 배'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수출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베트남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정읍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 상차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배공선회 참여 농가와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상차식을 통해 친환경 정읍 배를 베트남으로 수출해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고국의 맛있는 배 맛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약 280톤을 수출할 계획이며, 1차로 16톤 약 3천4백민원에 이르는 배를 수출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25일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베트남에 '정읍 배'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수출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베트남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로 정읍 배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관로 확보와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